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변화하는 아버지 역할 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

Tag:

1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6:1-4)

요즘은 그야말로 너무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의 가치관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흔히들 스마트폰이 아이를 망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렇다고 아이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을 것인가? 10여 년 전 이야기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더 나은 면이 있고, 또 아쉬운 면도 있다. 그래서 더 삭막한 사회가 되었다느니, 전통적 공동체(집안, 동네, 마을, 위계질서, -대부분 유교적 가치관에서 말하는 윤리들)의식이 사라졌다고들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더 친밀한 사람들끼리의 공동체가 장소와 시대와 나이를 초월해서 형성되고 있어서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더 활기차고 자유롭고 편리한 세상이 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사이버 공간의 활기차함은 있어도, **실제생활의 공동체성이 소홀해지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진짜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정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잊지 말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수고로움을 기꺼이 지불하자!**

-요즘은 며느리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아들네 집 방문하기 어렵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거부하기 일수다.

-명절에 어머니에게 받은 김치통 휴게소에서 버렸는데, 그 속에 용

돈이 들었다나 뭐래나. 이런 지어낸 이야기가 현 시대의 풍속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며느리들 정신차려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하나? 시어머니들 정신차리라고 해야 하나? 김치는 호불호가 명확한 불편한 음식인 것이 틀림없다. (아직은 홍어회나 홍어국 급은 아니지만 냉장고에 오래된 김치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이제는 정성어린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집에서 만든 김치 시대는 갔고, 마트에서 유명한 김치회사의 소규모 김치 시대가 왔으며, 쿠쿠의 시대는 갔고 햇반의 시대가 왔노라! 모든 음식이 거의 100% 조리된 채로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집에서는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앵겔계수가 높아지는 기현상.)

이제는 이웃집 아이 안부는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이상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아이가 대학에 갔는지, 취직은 했는지, 결혼 했는지, 교회는 잘 다니는지, 아이는 낳았는지 묻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자랑도 못한다. 누구의 아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갔는지, 아직도 취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괜히 자랑 했다가 뒤에서 욕먹는다. 심지어는 집이 어딘지 집의 구조가 어떤지 묻지 못한다. 부모가 잘 계시는지 당신이 모시고 사는지, 일 년에 몇 차례나 찾아뵙는지, 요양원에 계시는지 물어보면 우주인이다. 심지어 이혼했는지 재혼했는지도 묻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싸우자고 시비 거는 사람처럼 생각한다. 명절에 식구들 만나도 정치이야기는 꺼내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날씨가 어떻느니, 운동이 어떻느니, 맛있는 음식이 어떻느니, 여행이 어떻느니 하는 공전하는 이야기만 나눌 수 있을 뿐이다.

안부도 조심스럽게 묻고 축복하는 분위기가 좋겠다.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란 윤리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이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정신이다. 그것이 곧 순종, 사랑, 공경, 정결, 희생이고 이런 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고, 정확한 방법론은 성령충만이다.

1. 순종을 가르치는 아버지

1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말로 가르쳐지지 않고, 분위기로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다.

-순종의 요소에는 공동체, 관계, 윤리, 일, 경제가 얽혀있다.

(순종은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가 아니라 -작각 일 순위 가치- 순서 의식에 대한 감각이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정하는 윤리이다. 우선순위에 대한 윤리.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은 아니다.)

-순종관계에는 상하관계와, 동등관계, 선후관계가 있다.

-상하관계는 부모와 자식, 선생과 학생, 공무원과 국민,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다.

-선후관계에는 선임과 후임, 선배와 후배, 형과 아우 등이 있다.

-동등관계는 부부관계, 동기 동료, 공동체의 일원 등이 있다.

-상하관계에서의 순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선후관계에서는 후임이 선임에게 순종하는데, 단 순종의 항목이 일과 임무분장에 관한 것뿐이다. 만약 선배와 후배, 또는 형과 아우일 경우에는 동생은 형이하하는 대로 따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선배나 형이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탁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동등관계에서는 수시로 1번 주자가 바뀐다. 1번은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제일 책임을 많이 지는 사람, 제일 힘이 센 사람, 제일 적당한 사람, 어찌다 보니 1번 번호표를 뽑은 사람, 서다 보니 맨 첫줄에 선 사람이 1번이다. 일단은 1번이 하자로 하는 대로 하고, 정 안되겠다 싶을 때는 2번이 1번을 설득해서 의도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

다만 옥신이와 각신이가 싸울때는 남편이 1번, 힘센 사람이 1번, 능력있는 사람이 1번해야 한다. 다만 1번은 2번이 순종하기를 거부할 경우, 결국 각자 따로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그때의 비용이나, 시간이나, 기타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서로는 감정싸움이나 자존심 싸움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한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교훈이다. 이 경우 집안 전체가 순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그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도록 유지해야 하며, 순종에 문제가 생기면 버릇이 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2. 공경을 가르치는 아버지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이란 자녀가 부모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보살피는 것을 말하며, 항상 아이가 그런 것이 몸에 배도록 가르쳐야 한다. (말로만 할 경우에는 더 신중해야 함.)

아버이 낳인데 감사하다는 말한마디 없다고 하소연 하시는 분이 있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공경보다 더 큰 사랑과 희생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실천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한다. (동부교회 조 장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계명이다.

3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아버지

4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동안 어른들의 잔소리가 많았다. 과거 이야기는 재미를 위해서 하

는 말이 되어야 한다. 그것으로 아이를 나무라거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말이 되면 손해다.

-이제는 보릿고개가 추억일 뿐이다.

-우리가 고생스런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다. 너희들이 그런 고생을 겪지 않아서 인생을 모른다거나 나사가 빠졌다고 생각지 말라.

-요즘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노동의 갑질을 가르치지 말고, 노동의 거룩함을 가르쳐야 한다.

-학업의 목적은 갑질하는 지위를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기 위함임을 가르쳐야 한다. 졸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재를 중요함을 가르쳐야 한다. 인재도 많으니 관계를 통한 인맥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치자.

-세상에는 거짓된 지식과 교훈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임을 가르쳐야 한다. (가치혼동의 시대)

-사람의 만족은 의식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에서 오는 것임을 가르치자.

-세상의 순기능도 가르쳐야 한다. 세상의 긍정적인 모습.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산업 기술 문명 가치 등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와 습관이 들도록 하고,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개척하도록 하고, 전교조의 가르침과 비성경적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

노엽게 하지 말라; 강압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소 경건을 실천해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성경: 골로새서 4장 1-6절

Tag:

1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시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4:1-6)

2. 기도를 계속하고. 꾸준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신에게 가능한 기도의 주기를 정해놓고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 기도에 깨어 있는 것. 정해 놓은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에 잠자는 것.

-감사함으로 깨어 있기. 감사하는 분위기,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위기,(감사가 열매이나 주문이 되지 않아야 함.)

-자신의 부족함이나 무능함이 느껴질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넘치도록 풍성해진 것을 감사한다.

3. 전도할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자.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알려져 있지 않고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

-사실은 궁금한데 마땅히 물을만한 곳이 없고, 세상에 너무 거짓말이 많은데 믿을만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영적인 지식에 갈망하고 있다.

-우선은 이런 비밀을 전달하려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 후에 그가 결단하고 교회생활을 하게 된다.

-비밀을 말하려고 할 때 서두만 말하고, 교역자와의 전문적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라. 전도를 위한 약속은 스스로가 만들면 된다.

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면 교역자는 마땅히 할 말로써 복음의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5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전도를 위해서 정치나 윤리 이야기가 심각한 분위기에서는 최선을 베풀어주는 것으로 시작하라.

-요즘처럼 저격하는 분위기, 인민재판 분위기, 묻지마 악플 세대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

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행동은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고 복음의 말씀은 소금처럼 사용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영적인 궁금증을 표현할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마땅한 대답을 주신다.

-이 마땅한 대답은 스스로가 소금처럼 사용하고, 전문 교역자에게 연결한다.